

2019년도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9. 1. 2.(수) 14:00~16:30

□ 장 소 : 대학본부 3층 307호

□ 참석위원 : 6명

- 교원위원(3명) : 교학부총장, 학생·취업처장, 기획예산처장
- 학생위원(3명) : 부총학생회장, 사회과학대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 배 석 : 2명 (간사 : 기획예산과장, 서기 : 기획예산과 담당자)

□ 심의안건 : 2019학년도 인천대학교 등록금

□ 회의결과

- (학생 측) 학부 등록금 3% 인하, 장학금 비율 0.5%p 증가, 학생복지요구안 예산 3억원
- (학교 측) 학부 등록금 0.2% 인하, 장학금 비율 0.5%p 증가, 학생복지요구안 예산 3억원

□ 회의내용

▶간사

성원 보고(재적위원 총 7명 중 참석위원 6명, 불참위원 1명)

▶교학부총장

인천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지난 번 사전회의를 했었고, 오늘은 공식적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사전 협의에서 학생복지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했었고 요구안이 기획예산과로 제출되어 총 121건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중에는 본부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 있고 단과대학과 같이 논의해야할 건도 있는데

현재 예산부서에서 이 121건에 대해 담당부서에서 검토하도록 요청을 해놓은 상태로 가능, 불가여부와 소요예산을 추계도 요청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121개를 다 논의할 수는 없으니 실무부와 학생회가 만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까지 조정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오늘 오후 내지 내일 오전까지는 답변이 취합되어 나올 것으로 보이니, 내일 오후 정도에는 학생들과 미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는 등록금을 결정할 때 3가지를 같이 고려합니다.

학생복지요구안 규모, 등록금 세입대비 장학금 비율, 등록금 수준 이렇게 3가지를 서로 연동이 되어서 결정이 되는데, 오늘 이 규모에 대해서 학교 기획예산처와 학생회에서 생각하는 바를 큰 틀에서 논의하고 세부적인 것은 후에 조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기획예산처에서 학생복지요구안 측면에서 학교 전체 예산과 비교했을 때 어느 수준이 바람직하다 먼저 얘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회의자료 안내

(등록금 심의대상, 최근 3년간 학부 등록금 현황, 대학원 등록금 현황, 외국인 신입생 등록금 현황, 2019년도 예산(안), 최근 3년간 학부 장학금 합의사항, 향후 일정)

▶교학부총장

작년 복지요구안 규모는 얼마였죠?

▶간사

5억원이었습니다.

▶교학부총장

아직 복지요구안이 안 나와서 확실히는 알 수는 없지만,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대략 5억 원에서 서로가 고민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시설보수비도 많이 들고 사실 미화용역만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확장되어서 모든 비정규직, 용역직이 정규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127명 인건비 문제도 있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실무부서에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부총학생회장

일단 저희가 제출받은 세입세출자료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세입에 관해서 등록금을 산정할 때 신입생 충원율을 99%로 잡으셨던데, 3년간의 현황을 보니까 적어도 99.7%를 유지해 왔어서 이렇게 적게 잡으면 세입과 세출의 차이가 더 커보이게 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금액이 862억원만 잡혀있는데 저희는 880억원으로 알고 있어서 적게 잡혀 있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간사

우리가 처음 2019년도 예산작업을 할 때는 정부 출연금이 국회에서 확정이 안 된 상태라 부득이하게 일단 2018년도 수준인 862억원으로 적어놓았고 최종 880억원으로 확정된 다음 현재는 변경해놓은 상태입니다.

▶기획예산처장

그리고 신입생 충원율은 이를 담당하는 재무회계팀에서 올해 수준을 토대로 추정하여 잡은 거라 나름 부서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선으로 잡은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다른 건들과 마찬가지로 이를 다 기획예산처에서 세입예산으로 확정할지는 계속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올라오는 세입예산 중 과대계상 된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모두 그대로 인정하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세입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처 입장에서는 세입은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총학생회장

신입생 충원율이나 정부 출연금을 조정하면 세입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학부총장

복지요구안은 대략 작년 수준 5억원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겠고, 장학금이 특성화사업을 3개 부서에서 했었는데 금년 2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거기 장학금이 17.3%안에 들어있었는데 이번 2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그 장학금 이상이 되려면 예산을 더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성화사업 장학금 규모가 어느 정도였죠?

▶기획예산처장

2억 2천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교학부총장

그럼 장학금 비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해도 2억 2천만원 세출예산을 전년보다 더 확보를 해야하는 것이네요.

▶학생·취업처장

2018학년도 재학하는 모든 학생 중 40.1%가 장학금에 의해 등록금 전액 면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상으로 76~78%까지도 다양한 장학금이 지급이 되었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학교 장학금이 매우 괜찮은 편입니다.

▶부총학생회장

장학금 편성규모가 동결하는 것도 힘들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학부총장

아무래도 그 수준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학교에 고충이 있다는 것이지요.

▶부총학생회장

편성규모가 등록금 세입 대비 비율로 산정이 되는데, 2017년도에는 등록금 세입예산이 많았던 반면 2018년도에는 세입예산이 줄어들면서 실질적인 장학금 규모는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등록금이 먼저 잡혀있어야 장학금 규모에 대해 논의할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CK에서 2억 2천만원 지원이 됐다는 것은 사실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만약 그러하다면 학생복지요구안의 경우 작년은 5억원이지만 재작년의 경우에는 3억원 정도로 알고 있

는데 학생복지요구안을 줄이더라도 장학금은 기존 인상의 폭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등록금 안에 대해서 먼저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

일단 학생복지요구안에 대해 얘기하자면, 동북아 엘리베이터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억원 이상이 투입해야 하는 것이라 없던 공간에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 규모가 큰 일입니다. 이 건을 제외하고는 합리적인 안이 많이 왔고, 버스 노선 수 및 흡연 부스 수 등은 전체 금액 내에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장학금은 순수 교내 장학금으로 국가장학금 1,2는 제외 된 것입니다. 이 장학금에 국가장학금 1,2까지 다 합해서 학생들이 많이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인데, 국가 장학금 2는 합심해서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등록금 인하하는 데는 동의하고 작년 규모만큼만 가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장학금을 플러스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총학생회장

저희는 전국 34개 국립대학교와 지방거점국립대를 정리해서 평균 등록금을 산출했는데, 등록금 차이가 10개의 지방거점국립대와는 6%정도가 나고, 전국은 9% 내려야 수준이 맞았습니다.

총장님 공약도 있고, 2012년도에는 합의문도 있었습니다. 2012년도 점진적으로 인하한다는 방안이 있고, 저희도 점진적 인하에는 동의를 합니다.

총장님도 전 대에서 약속한 것이지만 지키겠고, 총장님 임기 내에 다른 국립대와 맞추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는 3%대로 인하를 하는 안을 가져왔습니다.

▶교학부총장

등록금 3% 인하면 세입이 15억원정도 낮아지는 것이네요.

▶부총학생회장

정부출연금 862억원이었던 것이 880억원으로 18억원 증가하는 부분을 등록금을 낮추는

데 쓰면 그 정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교학부총장

등록금 3%면 15억 6천만원이고 장학금 17.3% 유지하는데 2억 2천만원 더하면 거의 18억원 정도 되겠네요.

▶부총학생회장

그리고 이 건은 별도로 예산편성지침에서 보니까 기타운영비에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 이사회나 평의원회, 재무경영위원회는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생겼기 때문에 회의비를 지급하는 것 같은데 등록금심의위원회도 고등교육법으로 생긴 것 같은데 왜 회의비가 안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간사

부총장, 처장님들은 당연직으로 직무상 당연히 하고 계셔서 못 드리고, 평의원회나 재무경영위원회의 당연직 분들은 안 드리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 인천시나 전문가 분들만 드리고 있습니다.

▶교학부총장

학생위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직원

예. 변호사님 자문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학생회장

일단 예산편성지침 상에는 내부 교원 및 직원인 경우 수당 지급 불가인데 밑에 예외조항이 있어 규정에 지급이 명시된 이사회, 평의원회, 재무경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예외라고 되어있는데 위촉이 아닌 위원이 있으니 회의비가 지급이 되어야 하지 않나합니다.

▶교학부총장

예. 그건 부서에서 검토를 해주세요.

▶기획예산처장

예. 그리고 안에 대해서는 잠시 휴정하고 얘기를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학생 안은 등록금 3%인하이고, 학생복지요구안은 어떤가요?

그것도 2017년도를 봤을 때는 계속 유동적이었던데 현실성을 감안해 정리하자면 사실 학생복지요구안은 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으면 학생복지요구안을 좀 줄여서 3억원에 진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들 생각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처장

사실 등록금 3% 인하는 저희가 받기 어려운 안입니다.

862억원이 880억원으로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 기획재정부에 요청할 때 새로운 사업, 혁신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데 18억원 증액한 걸 등록금 인하로 다 귀결시키면 우리가 여러 위원회 및 정부부처의 공감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간강사법도 새로 되어서 강사비만 20억원이 추가로 들어가야 합니다.

▶교학부총장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장학금이 등록금을 최소한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퍼센트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많이 내리면 그 다음에는 내리기가 어려우니, 점진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

그리고 우리가 거점대학보다 등록금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장학금 받기에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장학금2를 2017학년도에도 많이 받았고, 2018학년도에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인하 기초를 이어갈 수 있는 폭이 있다는 것은 장학금 확보에는 좋을 수 있습니다.

▶부총학생회장

다른 학생위원의 의견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아리연합회장

이번 예산을 검토하시면서, 등록금 얼마를 인하하고 장학금 얼마를 인상했을 때 국가장학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하셨나요.

▶기획예산처장

기본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다른 학교와 상대 비교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어서 정확하게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학교들이 일반적으로 동결의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등록금은 인하, 장학금은 인상으로 가면 더 받을 것입니다.

▶동아리연합회장

저희 입장에서 그런 점을 알기가 수월하지 않아, 학교 미래를 논의하는 차원에서 몇% 올리면 얼마를 확보하고 그런 자료를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

제가 곧바로 확인해서 그런 부분을 알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동아리연합회장

그리고 우리학교 학자금대출 순위가 높던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40.1%가 장학금으로 등록금 면제 된다는 말씀이 놀라웠는데 학자금 대출만 보면 그 친구들에게 많이 돌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등록금 인하 3%대를 가져온 것입니다.

▶기획예산처장

학자금대출이란 부분이 두 측면을 봐야 합니다. 일단 제가 학생처장을 할 때도 그랬지만, 저는 교내장학금을 생활비 장학금으로 바꾸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학교가 등록금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금 내는데 부담을 느끼는 사람보다는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내장학금 디자인을 새로 하고 싶었는데 학내에 장학금 대상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강해 결국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 국가장학금 신청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1/3 이상인 전체적 구조가 위층, 아래층이 많은 구조라 그런 부분에서 장학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자는 논의는 계속 해봐야

하고, 학자금대출은 단순히 등록금이 높아서 그런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3% 내려도 6만원 떨어지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학자금 대출이 늘고 준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학생취업처장

맞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봤는데 과거 1~2년 사이에 학생들 소득수준이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1,2분위가 대폭 줄고 7,8분위가 늘었습니다. 그래도 알바를 많이 하는데 8분위여도 집에서 용돈을 안주면 알바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합니다. 등록금 조금 줄어드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곳에 핀셋으로 장학금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학부총장

장학금 대상자가 아닌 8분위 이상의 학생들이 주로 등록금을 많이 내는 학생일텐데 그 학생들에게 몇 만원은 큰 차이는 아닐 수 있고, 오히려 소득분위가 낮은 학생들이 알바를 안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체계를 잘 만드는 것이 등록금 조금 낮추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네요.

▶기획예산처장

이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끝나서도 장학금 체계에 대한 논의를 학생·취업처장님과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동아리연합회장

올해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3%로 계속 떨어지면 몇 십 만원이니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장학금 얘기는 매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처장

그리고 만약 이번에 3% 인하하면 내년부터는 인하가 어려워집니다.

올해 가이드라인이 2.25%까지 인상이 가능하게끔 나왔고 대부분 사립대학은 웬만한 제도들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은 거의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는데 국가장학금은 학생들에게 가는 것이고 이 부분은 학교 예산이 당장 부족해지기 때문에 향후 인상모드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예산에서 등록금의 비율이 조금 낮을 뿐이지 여기에서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과학대학생회장

그럼 일단 장학금 체계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획 있으면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고 생활비 장학금이 있으려면 장학금 체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계획이 명확하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총장님의 공약도 있고 등록금을 점진적으로 인하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처장

우리가 바꾸겠다는 큰 계획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결국 학생들이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큰 디자인은 학생들이 하고 세부적으로 계산하고 서포트 하는 건 처장님이나 학생지원과에서 하겠지만, 현재 운영되는 것이 학교 안이라고 생각하고 학생들이 서로가 합의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학부총장

예. 그럼 잠시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휴 회 -

▶교학부총장

속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1, 국가장학금2 관련해서 외부에서 어떤 계산을 통해 정해지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학생취업처장

공개되어있지 않고, 각 대학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고 상대적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교학부총장

그래도 우리가 등록금을 조금씩 인하하고 장학금도 계속 올리니까 국가장학금2를 받는 데 도움이 된 것이겠죠.

▶학생·취업처장

의도적으로 0.5%씩 올린 것 같은데 이게 국가장학금2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교학부총장

장학금 0.5%면 2.5억원이네요. CK 장학금이 2.2억원이었으니 금년에도 0.5%만 인상하면 순수하게 5억원 정도 더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총학생회장

등록금을 인하하게 되면 여기서 규모는 더 줄어둘 수 있습니다.

▶교학부총장

그렇긴 하지만 그 규모가 크진 않을 것입니다.

▶부총학생회장

대학운영 평가보고서란게 있던데 여기에 교육비 환원을 항목이 있습니다. 산식이 총 교육비 / 총 등록금이더라고요.

▶기획예산처장

교육비 환원율은 등록금과 발전기금, 산학협력단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교비 투자되는 돈은 다른 대학보다 월등이 많은데 발전기금이나 산학협력단 규모가 좀 작은 측면이 있습니다.

▶부총학생회장

성과보고서 표에 의하면 총 교육비 / 총 등록금인데 평가를 잘 받으면 좋은 것일텐데 실제 작년에는 목표치를 초과달성했고 2017년도에는 등록금을 1% 낮췄기 때문에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장

거꾸로 보면 1.0% 인하했다가 0.2%인하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 인하했을 때 이사회와 재무경영위원회에서 다른 학교들은 동결하는데 우리는 1.0% 인하할 정도로 여유가 많은지에 대해 질의가 많았습니다.

등록금 인하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크지 않다면 다른 부분에서 확보하는 것이 낫습니다. 복지요구안을 5억까지 늘린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외부라든지 후배를 고려하자면 등록금은 가급적 천천히 내리는 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총학생회장

세입세출예산과 집행현황을 받았는데 현재 예산 집행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더 높은 예산을 요청한 부서들이 많던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데 질의서를 드리면 될까요.

▶기획예산처장

각 부서별 다 논리는 있고 기본적으로 예산을 많이 남기면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간사

단과대학 예산이 많이 남은 건 새 학기 시작 전에 1,2월에 집중적으로 학기를 준비하기 위해 지출하기 때문입니다.

▶직원

우리가 월마다, 분기마다 집행점검을 하고 불용예정액을 집계하여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고 본예산의 실무협의 시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총학생회장

이 많은 예산 내용들을 보면서 나름 질의서를 만들었는데 한번 쯤 이것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일단 질의서를 주시고요,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금요일에 또 얘기하시도록 하시죠.

▶동아리연합회장

저희가 받은 2가지 자료에서 2018년 예산액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던데 왜 다른가요.

▶직원

자료 하나는 본예산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추가경정까지 반영된 예산이어서 다른 것입니다.

▶동아리연합회장

잔액에 있어 페널티가 있다고 하셨는데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쓰게 되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간사

그런 문제가 있어서 대학운영성과계획이 있는데 계획에 예산이 쫓아가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예산과 계획이 불일치된 측면이 있어서 예산과 계획들을 연결시켜 하나로 운영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성과평가원에서 단과대학, 대학원 등 자체 평가와 예산 들여다보고 원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합니다.

▶교학부총장

현실적으로는 등록금은 가능한 적게 낮추고 장학금과 복지요구안을 확보를 하는 것이 국가장학금2 확보와 여러 위원회 및 정부부처의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한 것을 토대로 돌아가서 잘 정리해서 다음에 더 좁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 가는, 지속가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정하면 좋겠습니다.

▶교학부총장

오늘 돌아가셔서 서로 큰 틀에서 고민을 해주면 좋겠고 복지안은 정리해서 오는 대로 서로 협의하고 예산안에 대해 궁금한 것들은 제시해주면 실무부서에서 1차 답변을 하고 부족하면 미팅을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2차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금요일에 만나는 걸로 합시다.

▶부총학생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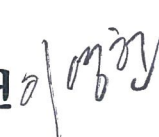
마치기 전에 다른 지방국립대와 등록금 수준을 맞춰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왔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점진적 대학 발전을 위해 협의점을 찾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시해주신 안도 좋다고 생각해서 돌아가서 협의할 수 있는 안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학부총장

모두가 대학을 위한 것이니, 금요일에 잘 좁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9. 1. 2.

위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위	원	박	종	태 
위	원	최	병	조 
위	원	허		전 
위	원	최	동	혁 
위	원	이	영	현 
위	원	고	경	남 
위	원	허	인	수